

여수해수청, 세계등대의 날 기념 사진전 개최

오동도등대 홍보관에서 공모전 출품작 전시 및 방문객 이벤트 운영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7월 1일 세계등대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등대의 미적, 문화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세계등대의 날 기념 사진전』을 오는 7월 1일(수)부터 7월 7일(화)까지 오동도등대 홍보관에서 개최한다.

전시 사진은 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작품들로 구성되며, 오동도등대 홍보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등대가 단순한 관광·경관 시설을 넘어 선박의 위치 확인, 항로 안내, 위험구역 인지 등 안전한 항해를 돕는 중요한 항로표지 시설임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오동도등대 홍보관을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휴관일인 월요일은 제외된다.

또한 사진전 기간 중 방문객을 대

상으로 사진 감상평 작성과 등대 이 름 맞추기 이벤트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는 등대 그림을 직접 꾸며 볼 수 있는 체험형 텀블러와 세계등대의 날(7.1.)을 기념하여 부채 등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사진제를 통해 등대가 단순한 항로표지를 넘어, 국민이 문화와 감성을 함께 나누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대를 활용한 해양문화 체험과 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등대의 기능적 역할과 문화적 가치를 함께 알릴 계획이다.

전시 작품은 전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다양한 등대 사진으로 구성된다.

오동도등대 홍보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등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등대가 단순한 항로표지를 넘어 해양문화 자산임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등대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는 핵심 해양시설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여수해수청은 이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 안전 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시는 행사 기간 동안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관람이 제한된다.

사진전 기간 동안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관람객은 사진 감상평을 작성하거나 등대 이름 맞추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등대 체험 텀블러와 기념 부채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빈 기자



세계 등대의 날 기념 등대 사진전 포스터

/여수 시청 제공

노관규 순천시장 퇴임... 민선8기 순천시정 마침표

노관규 순천시장이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민선8기 순천시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퇴임식은 노관규 시장 내외와 가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해 힘 없이 달려온 민선8기 시청 여정을 돌아보고 그간의 노고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퇴임식은 시장 약력 및 공적 소개, 재임 기념패와 공로장 전달,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재임 기간 주요 발자취를 담은 기념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민선8기 시청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겼다.

노 시장은 민선4·5·8기 순천시정을 이끌며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이라는 시청 철학을 바탕으로 순천이 미래 창조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유빈 기자

광양용강도서관,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2차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광양용강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2차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용강도서관은 현재 「오감(五感) 문학관: 활자를 벗어난 입체적 문학」을 주제로 심리극, 읽기, 낭독, 필사, 문학기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을 체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은 ‘읽기’ 과정으로, ‘타인의 고통과 내면 마주하기’를 주제로 7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3회 운영된다. 강의를 문학평론가이자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윤재민 조교수(현대문학 전공)가 진행한다. 한강 작가의 「여수의 사랑」과 수

록작 「어둠의 사육제」, 「질주」를 함께 읽고, 대표작 「희랍어 시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내면과 침묵, 상실, 소통의 의미를 살펴볼 예정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yang.go.kr>) 또는 광양용강도서관(☎061-797-3868)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숙 도서관과장은 “이번 강연이 문학을 통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용강도서관은 오는 8월 25일부터 3차 프로그램인 현대시, 에세이 낭독 지도 ‘숨결과 울림의 미학’을 총 2회 운영할 예정이며, 수강생 모집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재가 중증장애인에 폭염·감염 대응키트 전달

전남 곡성군이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 가정에서 여름철 재난 대비 물품을 전달했다.

곡성군 주민복지과는 지난 29일 재가 중증장애인 30명의 가정을 찾아 폭염·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키트를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폭염과 각종 자연재난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과 읍·면사무소가 함께 참여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방문은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직원들은 폭염은 물론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관련 재난 안전 수칙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방문의 실효성을 더했다.

대응키트에는 텀블러, 냉각 선풍기, 우양산, 손소독제, 여름 담요, 폭염 대응 안내문 등 여름철 건강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담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장기화되는 만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앞으로도 재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일규 기자

구례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당부

구례소방서(서장 한만조)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점검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2년마다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야 하는 제도이다.

점검은 관리주체가 전문 점검업체를 통해 실시하거나,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 ▲자동화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

보기 ▲완강기 등 세대 내 설치된 주요 소방시설이며,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법정 기한 내 모든 세대의 점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미점검 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될 수 있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이행이 요구된다.

한만조 구례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